

NEWS 한국가톨릭의료협회

몽골 의료봉사 사랑의 날개 7기 1차 성황리 마쳐



5월 6일부터 13일까지 7박 8일 동안 몽골 다르항시에서 사랑의 날개 7기 1차 의료봉사 활동이 진행되었다. 학교보건 사업과 안과 진료 사업으로 진행된 이번 봉사에는 사제 1명, 의사 8명, 간호사 7명, 치위생사 1명, 안경사 1명, 조리봉사 2명, 행정 4명 등

모두 24명의 봉사단이 참가했다.

다르항 제1병원에서 진행된 안과팀은 257명의 외래 환자 진료와 15명의 백내장 환자 수술이 있었으며, 다르항 1번 학교에서 진행된 학생신체검사와 구강보건 교육에는 모두 957명의 학생이 검사를 받았다. 신장과 체중 측정을 비롯하여 고학년에게는 혈압 측정과 필요에 따라 소변검사가 실시되었다.

아울러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지원으로 11개 학교에 총 39종의 신체검사 도구와 기자재를 전달하였고, 12개 학교의 보건교사를 시범사업이 펼쳐진 다르항 1번 학교 검사 현장에서 기자재 사용에 대한 교육도 함께하였다.

몽골 의료봉사에서는 사회복지법인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의 지원으로 학생 안경 지원사업이 있었다. 시력이 좋지 않은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변변한 안경점이 없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 중 69명의 학생에게 73개의 안경이 지원되었다.

▶ 명단

장소	담당	분야	이름	소속 및 직함
지도신부			김태건 라파엘	성안드레아신경정신병원 홍보실장
병원	안과외래 백내장 수술	의사	정성근 마티아	여의도성모병원 안과 교수
			양지욱	의정부성모병원 안과 조교수
			이지명	여의도성모병원 안과 전공의
			이재형	부천성모병원 안과 전공의
			신정아	여의도성모병원 안과 전공의
	수술실	간호사	강순정 미카엘라	제주 한마음병원 수술실
			이윤주 스텔라	의정부성모병원 수술실 Unit
			최수지	성빈센트병원 수술실
안과외래		유선희	서울성모병원 161Unit 유방갑상선 전담	
안경지원사업	기사	권현수	VOMM 안경점	
학교	학생진료	의사	신완식 루카	요셉의원 의무원장(감염내과), 협회 의료봉사위원장
			이재혁 스테파노	일산백병원 신경외과 과장, 협회 해외의료봉사부단장
			장필상	의정부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임상과장
	학생 신체검사	간호사	한송이	서울성모병원 외과중환자실 Unit
			양우정	성빈센트병원 수술실
	구강교육 및 불소도포	치위생사	박성현	연세치과 교정과
간호사		배보람 비아	부천성모병원 응급실 Unit	
조리			이영주 엘리사벳	전)서울성모병원 호스피스 봉사자
			신 마리노임	
행정			조한수 마리노	(사)한국가톨릭의료협회 사무국장
			전양미, 김소연	(사)한국가톨릭의료협회
			손지정	(사)한국가톨릭의료협회 ODA 청년인턴

몽골 보건교사 초청 연수 마쳐



본 협회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지원으로 실시하고 있는 '몽골 다르항시 아동·청소년을 위한 학교보건시스템 구축' 사업의 하나로 다르항시 보건교사 초청 연수가 6월 23일부터 29일까지 있었다.

이번 연수는 이미

현지 지도를 통해 다르항시 학교보건시스템을 위해 본 협회와 함께 노력하고 있는 '서울초중등보건교과 교육연구회'와 같이 진행하였다.

다르항시 교육국(우리나라 시 교육위원회에 해당됨) 부국장인 바야르벨렉과 다르항 16번 학교 의사인 오량토야가 참가한 이번 연수는 신영초등학교를 비롯한 5개의 초등학교와 송파구보건소, 서울성모병원 견학 등의 체험 프로그램과 창덕궁, 63빌딩 등을 둘러보는 간단한 서울시내 투어로 구성되었다.

6월 29일, 협회장 이동익 신부와의 면담이 있었다. 이동익 신부는 몽골 다르항시와의 지속적인 교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번 연수를 통해 선진화된 대한민국 학교보건시스템을 체험하고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몽골 다르항시의 학교에 현재 지원되고 있는 보건 장비와 시스템을 한국 수준으로 올릴 수 있도록 몽골로 돌아가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서울을 떠났다.

협회지 <Health & Mission> 다시 발간하기로

협회의 재정적인 문제로 발간을 중단하였던 협회지 <Health & Mission>이 9월호부터 다시 발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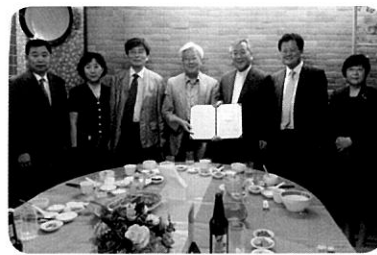
협회지의 발간 중단 이후 여러 회원들이 협회지 발간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인쇄매체로서 협회의 소식지가 필



요하다는 의견이 크게 대두되면서 인쇄 및 발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한 줄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발간하기로 하였다. 다시 발간되는 <Health & Mission>은 페이지 및 발행 부수를 줄이고, 협회와 직능단체, 회원병원의 소식을 중심으로

요하다는 의견이 크게 대두되면서 인쇄 및 발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한 줄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발간하기로 하였다. 다시 발간되는 <Health & Mission>은 페이지 및 발행 부수를 줄이고, 협회와 직능단체, 회원병원의 소식을 중심으로

의료봉사위원회 회의



나누는 의료를 통한 이웃 사랑 실천 사업인 의료봉사 활동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의료봉사위원회의 2012년도

두 번째 회의가 6월 7일에 평화빌딩 '선궁'에서 있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새로 임명된 위원에 대한 임명장 수여와 함께 하반기 해외의료봉사에 대한 준비 과정 논의와 대상 지역 변경 등에 대한 위원들의 나눔이 있었다.

이번에 새로 의료봉사위원으로 임명된 분은 정성근 교수(여의도성모병원 안과)와 김종희 약사(서울시 약사회 여약사회장)이며, 전체 위원 명단은 아래와 같다.

의료봉사위원 명단(위원장과 신임위원 외 가나다 순)

이름 / 세례명	소속, 직함	
신완식 루카	요셉의원 의무원장	위원장
김영훈 루카	의정부성모병원 병원장, 소아청소년과 교수	위원
김혜영 에밀리아	서울성모병원 가정간호센터	위원
박철휘 요셉	서울성모병원 신장내과 교수	위원
박호란 테클라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위원
변준희 안토니오	여의도성모병원 성형외과 교수	위원
이재혁 스테파노	인제대 일산 백병원 신경외과 교수	위원
최환석 요셉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위원
김종희 안나	서울시 약사회 여약사회장	*신임
정성근 마티아	여의도성모병원 안과 교수	*신임

제3회 원목자 연수



6월 21일부터 22일 까지 부산 성 분도 은혜의 집에서 모두 27개 기관 57명의 원목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원목자 연수가 있었다.

이번 연수에서 원목분과위원장 이재돈 신부는 병원 원목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제안했다. 현재 가톨릭계 병원의 원목자 양성에 있어서 사전 교육과 지속 교육의 부재와 전문성의 취약함을 들어 국내 가톨릭계 원목자들의 체계적인 양성과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교육과정 개발, 교육제도 확립, 그리고 조직 활성화와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이라는 세 가지를 제안했다. 우선 2012년도를 1차년도로 하여 기초 이론 교육과정 개발과 신규 원목자 위주의 실습 과정을 개발하고,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등에 이러한 과정을 병설하여 개설함으로 전문적인 이론 교육의 바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몽골 이비인후과 의사 한국 초청 연수



한국가톨릭의료협회 해외의료봉사 및 한국국제협력단(KOICA) 민간 단체지원사업으로 선정된 '몽골 다르항시 아동·청소년을 위한 학교 보건시스템 구축-연계병원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몽골 다르항 제 1병원 이비인후과 의사 몽흐바타르

(MUNKHBAATAR MOONON, 남, 41세)를 초청하여 연수를 실시하였다.

6월 25일부터 8월 24일까지 9주간 본 협회 회원병원인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이비인후과(담당 박시내 부교수)에서 연수를 받고 돌아갔으며, 연수목적은 ▲몽골 현지 의사에게 의료 지식 및 기술 전수 ▲몽골 다르항 지역 의료 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몽골 다르항 지역 정부와의 협력 강화 ▲국가 및 한국가톨릭의료협회, 가톨릭 중앙의료원 이미지 제고를 위함이다.

NEWS 직능단체

응급(사후) 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에 동참

6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재분류 결과를 발표하면서 응급(사후) 피임약을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재분류 안은 향후 공청회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거쳐 7월말 확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본 협회 직능단체인 한국가톨릭의사협회,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 한국가톨릭약사회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생명운동본부와 연계하여 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에 적극 동참하였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공동성명서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 추진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응급피임약은 여성과 청소년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낙태약이기도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6월 7일 의약품 재분류 결과를 발표하면서 응급피임약을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재분류 안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거쳐 7월 말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의 생명위원회를 비롯한 기관단체들은 식약청이 발표한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분류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의 생명운동본부가 6월 7일 발표한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지지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1. 응급피임약은 반 생명적인 낙태약입니다.

“인간 생명은 난자와 정자가 만나 수정되는 순간부터 자연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응급피임약은 성관계로 수정이 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 72시간 안에 복용하면 '반착상' 기능을 가진 일종의 '화학적 낙태약'입니다. 즉, 수정된 난자가 자궁내막에 착상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인간생명인 배아의 죽음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교황청 생명학술원에서도 “응급피임약을 배포하고 처방하고 복용하는 행위는 낙태 시술과 마찬가지로 윤리적인 악행”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식약청이 응급피임약을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 증진에 기여해야 할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2. 응급피임약은 준비되지 않은 임신과 낙태를 줄이지 못합니다.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응급피임약